

# 군산대학교 윤준원 교수

내당연 연구개발정보센터 초고속정보망기술지원실 윤상훈 (e-mail : shyoo00@hpccnet.kr)

우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사용량 증가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체 분야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 혹은 간과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초고속정보망기술지원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초고속용융기술사업이 1990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유체분야에서 전문가로서 30년도 마치 함께 일하고 있는  
군산대 윤준원교수 연구실을 찾아보았다.

**질문** 먼저 초고속 용융기술사업의 미학을 즐기 위해 지원사업 하나를 소개해 주시지요.

전파복도 악신시계 위치한 광전자부드케(주)는 정보 표시용, 광통신용 및 이동통신용 반도체 소자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본인만 1천년도 초고속용융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업의 기술적 이론서장은 악상 애피탈 반응장치 내에서 발광다이오드 소자용 웨이퍼를 제작하는 중에, 에피층 성장을 위한 재료인 칼륨액을 차운다는 과정에 많은 작업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한 칼륨액의 불안정한 주입 및 배출에 의해 에피층 성장도 깨가 불안정하여 웨이퍼 품질이 불량한 것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악상 애피탈 반응장치의 구조를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칼륨액의 주입과 배출과정을 수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석 및 검토함으로써 회사의 구조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이 설계된 반응장치를 웨이퍼 제작에 활용하고 있으며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질문** 유체해석에 있어서 슈퍼컴퓨터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신다면?

최근 컴퓨터 및 수치해석\* 법의 확장적인 발달에 힘입어 전산화석\* 법을 유체유동해석에 적용하는 전산유

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는 기계, 항공, 조선, 도축, 해양, 가상, 환경, 화학, 의공학 등의 여러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유동장의 형상이 복잡하고 3차원 난류유동이 형성되므로 수식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복한 유동 현상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계산적 자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상당한 메모리 및 계산시간이 소요되므로 슈퍼컴퓨터 지원의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골격화체의 최적설계, LES(Large Eddy Simulation) 또는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를 이용한 난류유동 예측에 있어서는 최고의 퍼티 프로세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병렬연산처리(Parallel processing)가 법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질문** 초고속 용융기술사업의 전망하여 효과적인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보다 내실이 있는 산·학·연 체계의 구축은 연구소를 폐기체로 하여 학계의 풍부한 연구인력과 기술을 기업체의 현장경험에 얼마나 원활히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성과가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학계와 연구소 및 기업은 각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인구기밀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즉, 학계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신기술을 개발하여 연구소·기업에 제공하고 연구인력을 배출하며, 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을 도출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반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상품화 개발, 판매 및 에프티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학계와 연구소에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한 개발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전수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교수님은 항상 끊임없이 웃는 인상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윤 교수는 주말에 군산과 대전을 오고가는 주말 부부다. 슬하에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 하나가 있으며 취미

로는 긴장을 위해 주 1회 정도 등교 교수들과 테니스를 즐긴다고 한다.

1981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경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에서 특별연구원으로 활동한 후에 군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6년부터 1년 반 동안은 미국 Penn, State Univ.에서 Research Associate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특히, 산업계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개선 및 개량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Shock Absorber의 강좌력성능 향상 및 소음저감을 위한 탤브구조 개선 그리고 대규모 간축구조물에서 효과적인 글로 및 재인설비를 위한 일기류 및 인력 등을 해석 등 2간의 연구주제를 수행하고 있다. ◉